

Photo Imaging Expo 2005 / Photo Forum 2005

한국공동관 참가, 해외 전시회 이모저모

한국광학기기협회는 한·일 광학산업기술협력사업중 대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Photo Imaging Expo 2005'에 국내업체 11개사와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한데 이어,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컨벤션센터(SOKOLNIKI)에서 개최된 모스크바 사진영상기자재전(Photo Forum 2005)에 올해 처음으로 국내 업체 8개사와 한국공동관으로 참가,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수출활성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정리/편집부



▶ 'Photo Imaging Expo 2005'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한 본 협회 및 업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국내업체 11개사 동경 'Photo Imaging Expo 2005' 참가

한국광학기기협회는 한·일 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중 대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Photo Imaging Expo 2005'에 국내업체 11개사와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관(29,280㎡)에서 열린 'Photo Imaging Expo 2005'는 일본 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

사진감광재료공업회, 일본칼라라보협회, 일본사진영상용품공업회 등이 주최하고 일본공업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전시회로서, 일본업체 132개사와 해외업체 15개사를 합한 총 147개사가 참가하여 카메라, 사진현상·인화기, 주변기기 및 관련 제품을 비롯하여 디지털 사진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각종 사진용품 및 액세서리 등을 선보였다.

전시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전시기간동안 주최 측의 적



▶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막된 'Photo Imaging Expo 2005' 테이프 커팅식 광경.



▶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Photo Imaging Expo 2005'에 국내업체 11개사와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 한국광학기협회 홍보관에서는 5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쳤다.

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지난해 42,636명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한 총 105,755명이 참관하여 대 성황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회 출품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후지필름을 비롯해 코니카, 코닥, 노리츠, 캐논, 소니 등 50개의 출품사들이 다양한 사진현상·인화장비와 프로페셔널 포토사진 기자재를 출품, 각 사들의 신기술을 선보였다.

출품된 제품의 공통된 특징은 디지털화된 장비와 함께



▶ 'Photo Imaging Expo 2005'가 개최된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관 전경.



▶ 전시장 한쪽에서는 즉석 사진관련 세미나가 열려 사진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 스토로브 및 소프트박스 등을 선보인 오로라라이트뱅크 부스 전경.



▶ 즉석 퍼즐머신기로 '제4회 디지털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산자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는 희망개발은 즉석퍼즐머신기와 원형 프레스커터기를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일본인들이 좋아할만한 일본풍의 사진배경과 유럽풍, 엔틱한 스타일의 배경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 원배경 부스 전경.

그 장비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하여 프론티어에서 유저들이 자체적으로 사진작업을 쉽게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아직까지는 고객들이 현상소를 찾아가서 이미지 출력을 주문하고 그곳에서 출력이 이루어져 찾아가는 오프라인 시스템이 많지만, 향후에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휴대폰의 착탈가능한 메모리칩 및 CD 등의 입력매체를 통해 저장된 이미지를 자판기에 입력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진을 편집하여 바로 출력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제품들이 다수 출품되어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의 보급률이 사진업계의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DP(Digital-Printer)기기는 저투자, 고화질 및 간단한 조작을 특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에 대응하여 출시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동관에서는 한국광학기계협회 홍보관을 비롯하여 디지털캐리어 'DPS 21' 등 사진 현상 및 인화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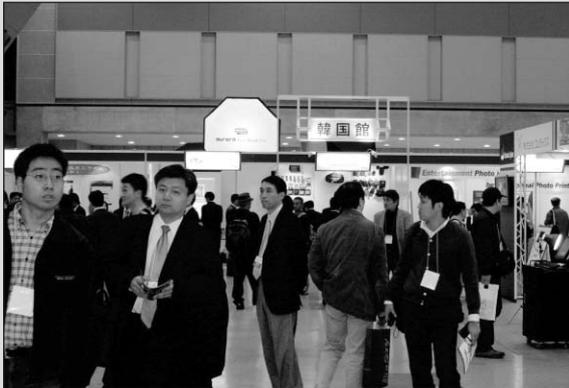


▶ 일본 FIT사의 부스에서는 자사 제품과 함께 한국의 이오시스템의 쌍안경(8X30)을 함께 전시하여 눈길을 끌었다(아래 사진은 이오시스템 제품 홍보전단지를 부착한 광경).

장비를 선보인 캐리마, 사진열쇠고리를 선보인 유한기획, 퍼즐머신기와 프레스커터 등을 선보인 희망개발, 사진 키오스크 등을 선보인 준시스템, 광학부품 및 카메라 가방, 삼각대 등을 선보인 디엔제이클럽, 카메라 가방 및 관련 액세서리 등을 선보인 매틴, 사진 배경을 선보인 원배경과 거인부락, 스트로보와 소프트 박스 등을 선보인 오로라라이트뱅크, 사진 이미지 세트를 선보인 예예사진기자재, 디지털은염프린팅장비인 '지니1420'을 중점 홍보한 정우엔터프라이즈 등 11개사가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일본시장에 적극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업체들은 이번 전시기간을 통해 581건의 수출계약 건수와 2억 엔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으며, 844건의 상담건수와 4억 엔 이상의 상담결과를 이끌어냈다.

국내 업체 8개사 'Photo Forum 2005' 참가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컨벤션센터(SOKOLNIKI)에서 개최된 모스크바 사진영상기자재전(Photo Forum 2005)에 올해 처음으로 국내 업체 8개사와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 한국 공동관 전경.

금번 러시아 'Photo Forum 2005'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정부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협회의 2005년 상반기 해외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참가하게 됐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사진영상관련 전문 트레드 쇼(Tread Show)인 'Photo Forum 2005'는 최근 국제 전시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진영상기자재 관련 전시회로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 한국광학기기협회 홍보관에도 연일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 디지털캐리어 DPS 업그레이드 모델을 새롭게 출품하여 대대적으로 홍보전을 펼친 캐리마의 부스 전경.



▶ 매티에서는 카메라 가방 및 케이스, 다양한 사진관련 액세서리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 다양한 용도의 아기자기한 사진용 열쇠고리를 선보인 유한기회사의 부스에는 연일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루페 및 필터 등의 광학기기를 비롯하여 카메라 가방, 삼각대, 메모리 케이스 등 다양한 사진관련 액세서리를 선보인 디엔제이클럽 전시 부스.



▶디지털미러랩 'e-lab' 등을 집중 홍보한 에프피인터내셔널 부스.

최근 러시아에도 '한류열풍'이 불고 있으나 사진영상 및 광학기기분야는 아직 미개척지역임에 따라 금년부터 한국광학기기협회의 한국공동관 참가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분야에 있어 수출시장 개척 등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한국공동관은 한국광학기기협회 홍보관을 비롯하여 루페, 필터 등 광학제품과 사진 액세서리 등을 선보인 디엔제이클럽, 가방 및 사진액세서리를 선보인 매틴, 열쇠고리 및 프레임 등을 선보인 유한기획, 사진코팅기 및 관련 기자재를 선보인 하일통상, 프레스크터트, 퍼즐머신기 등을 선보인 희망개발, 사진현상기를



▶사진코팅기 및 관련 기자재를 선보인 하일통상 부스.

선보인 FP인터내셔널, 산진현상 관련 장비를 선보인 캐리마 등 8개 업체가 총 9개 부스로 참가하여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러시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참가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총 192건의 수출상담 및 2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는 러시아 시장이 수요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전시회 참가를 통해 러시아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하고, 업체별 생산품목에 대한 향후 비전을 제시하여 신제품 정보수집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광학세계』 원고모집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안내 ●●●

1. 원고 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이달의 독자, 수필 등
2. 원고 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 마감 : 수시 접수중

*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

- 연락처 :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편집부
- TEL: (02)3481-8931 • FAX: (02)3481-8669